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가꾸는 행복, 누리는 행복 성경: 잠언 27:17-27
(Tag:행복,잠언,구약성경,가꾸다,복,지혜)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8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9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20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2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으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23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24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25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풀을 거둘 것이니라

26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27:17-27)

행복은 주어지기 보다는 가꾸는 것이다. 가꾼다는 것은 더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보살피거나 매만지거나 꾸미거나 꾸려나가는 것이다.

주어지는 행복도 있지만, 보통은 그 주어진 행복이 사실은 그 부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껏 가꾸어 온 것인지를 그 자녀들은 잘 모른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처럼 풍요를 누리는 이유는 해방이후 전

쟁을 거치면서 80년까지 약 25년 동안을 정말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하면서 우리의 부모들이 행복을 일구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을 독재의 시절이었다고 평가절하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땀을 흘리며 고생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풍요는 그때의 희생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표현됨.)

80년대 이후로부터 약 20년간은(IMF까지)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고, 세상은 과거 이승만정권때처럼 사분오열 되어 치열하게 다투었다.

사람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각자 욕심을 향해 맘껏 달리기 시작했지만, 사실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끌어들이느라 혈안이 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투기로 나타났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으며, 지금도 이 부동산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다.

문제는 이제 그동안 빨아들였던 미래의 가치를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IMF이후) 사람들은 저마다 과거 빨아먹었던 미래의 가치를 갚느라 허덕인다. 젊은이들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여전히 채무자이면서 또 다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고, 그 모든 대출을 갚느라 빠듯하다.

결국 대출로 인해서 풍요로운 현재를 누리기는 하지만, 대출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만 이자만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평생토록 이자만 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2008년 미국발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더 가시화 되어가고 있음.)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빌려온 돈의 가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재화를 만들어내는데 있다. 빌려온 돈이 클 경우 우리는 그것을 자금이라고 한다. 우리는 생활비를 위해서 큰 돈을 빌리는 경우는 없다. 큰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 돈을 이용해서 더 큰 생산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대출은 지혜롭지 못하다.(만약 그렇다

면 빨리 청산해야 함.) 더 크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대출이 지혜로운 것이다.(대출은 생산적이어야만 함.)

생활은 풍요롭게 하기 보다는 알뜰하게 해야 한다.

풍요를 누리려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지혜가 아님), 행복을 가꾸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이란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크게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을 가꾸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

마치 왕후장상이 되어 풍요를 누리므로, 또는 재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은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뿐만 아니라, 행복의 질도 고급스럽지 못하다. 또 위기가 닥치면 크게 위협해진다.

심지어 쇼핑의 기쁨은 등산의 기쁨보다도 크지 못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행복을 가꿀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행복이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스마트 폰 보고, 텔레비전 본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도 탈랜트는 나를 짜증나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해 준다. 자주 만나도 싫지 않고, 만날때마다 반갑고 행복하다. 우리는 서로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을 가꾸는 것이다.

-고사성어에 보면 이런 친구를 ‘팔목상대’ 한다고 말한다.

-친구의 말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새로운 정보와 세계에 대한 가이드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런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한 나도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뜻이다. (서로를 위해서 가꾸는 썸)

18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란 끊임없이 제공되는 식량을 뜻한다. 무화과 열매는 한꺼번에 많은 수확도 할 수 없고, 매일 매 시간 마치 끼니처럼 열린다.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지킨다는 뜻이다. 경제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엔겔계수를 낮춘다는 것이다.(아주 적은 노력으로 그러나 끊임없이 생필품을 얻어야 한다는 뜻.)

-생필품에 소모되는 재물을 아낀다는 뜻이다. 먹는 것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혜롭게 조절한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뜻한다. 생필품 때문에 소모적인 사람은 재물을 모으지 못하게 된다. 가산이 늘어나는 것이 곧 행복을 가꾸는 것이다.

19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한다는 뜻이다.

-행복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솟아난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심전심이 되면 행복하다.

-특히 식구끼리는 이심전심이 되지 않을 경우 기다려 주어야 한다.

20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은 만족할때까지 행복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이다.

-만족해야 행복한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면 사람에게 만족이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만족(満足;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우다) (언어 유희 = 萬足;10000걸음
-노력을 하면 9999족 이하를 얻을 수 있다?)

-즉 만족이란 얻지 못할 것이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만족은 아니어도 행복을 누리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족~9999족까지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이 곧 행복을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풍성한 행복을 누린다.

-차라리 칭찬하면 서로 행복을 누린다. 하나를 잘 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곧 그는 두 개를 하게 된다.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칭찬하면 두 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곧 그는 세 개를 하는 사람이 된다.

-이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훈련할 수 있고, 그러면 그는 만족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며, 전진하는 동안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만족하지 않다고 화를 내면서 나무라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된다.

22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찜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미련한 자란, 자기 눈에 만족하지 않아 보이는 자녀를 뜻한다. 그를 타작하거나 정미하면 탈곡되듯이 미련이 벗겨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는 더 미련해 진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계속해서 미련하다고 탓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차라리 지혜롭고 성실하게 칭찬하라.(무턱대고 칭찬은 역효과.)

23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23~27절까지는 부지런한 경제생활을 뜻한다.

-부지런히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을 가꾸는 것이다.

-그는 돈을 열심히 벌면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즉,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나중에 행복을 누리려는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점. 한탕주의 일은 일이 아니라는 점. 일은 가꾸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마태복음 7장 13-20절
(Tag:열매,좁은문,신약성경,마태복음,산상보훈,거짓선지자)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7:13-20)

좁은 문.

편하고 쉽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입장벽이 있는 더 질 좋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뜻.

-자기에게 너무 좁은 문은 삼가야 함.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함.

-자신의 열정, 젊음, 시간, 에너지를 쉬운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

-이 문은 화려한 문이 아님. 유혹의 문이 아님. 다른 가치와 다른

방식을 요구함.

-돈을 요구하지 않고, 회개를 요구함.

-지위나 명예, 또는 외모를 요구하지 않고 겸손을 요구함.